

<2016년 8월 10일 수요말씀> 중요

휴거에 변수가 없게 해라

본 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

『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
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이번 주 주일에는

‘자기 할 일은 생명과 같다.’ 라는 주제로 말씀했지요?

<중으나 나쁘나 우리는 하나다>

노래를 받은 ‘사연과 의미’ 도 말씀해 주면서,

<자기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>은

마치 ‘청소하듯 중하고 필요한 일’ 이며,

‘아픈 허리를 치료하듯 꼭 필요한 일’ 이라고 했습니다.

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도

자기가 행해야 ‘소원’ 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.

◎ 또 <휴거의 할 일>에 대해서도 말씀했지요?

<지금 이때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일>은 ‘휴거의 할 일’ 이다.

전쟁터에서 <원수>를 죽였어도 <자기>가 죽으면 무슨 ‘유익’ 이냐.
<적>도 살리고 <자기>도 살리는 것이 ‘승리한 것’ 이다.

이와 같이 <세상의 악한 자, 악평자, 우리를 괴롭히는 자>들을
‘지옥’ 에 보낸다고 해서 자기에게 ‘유익’ 이 되냐?

결국 <자기>가 ‘천국에 못 간다면,
원수, 악평자들을 다 지옥에 보내도 ‘자기 유익’ 이 없다.

섭리사를 악평하는 자들이나 세상의 악한 자들이 어찌 됐든,
<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>은
어서 ‘휴거’ 를 이루고 ‘우리의 갈 길’ 을 가는 것이다.

이것이 <우리가 꼭 해야 될 일>이다. (했습니다.)

◎ 오늘은 ‘휴거의 할 일’ 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 중요 부분

- ◆ 인생은 <좋은 일>도 보고 듣고 겪으며 존재하고,
<나쁜 일>도 보고 듣고 겪으며 존재합니다.

고로 인생은 존재하는 한
<생각과 행위>에 따라서 ‘변수’ 가 일어나게 됩니다.

고로 좋다가도 ‘생각과 행위의 변수’ 가 생기면,
갑자기 돌변하여 안 좋게 됩니다.

또 안 좋다가도 ‘생각과 행위의 변수’ 가 생기면,
갑자기 좋게 되기도 합니다.

- ◆ 이렇다 보니, 인생은 변화무쌍합니다.
신앙도 좋다가도 안 좋아지고, 안 좋다가도 좋아집니다.
모두 ‘생각과 행위의 변수’ 때문입니다.

이것이 ‘자기 휴거’와 직결되니,
<좋은 때>는 ‘휴거 차원’을 높이기도 하지만,
<안 좋고 나쁠 때>는 ‘휴거’를 잊고 상실하기도 합니다.

- ◆ <삼위와 주께 절대 속한 자>가 되고,
<휴거가 보장된 자>가 돼야 합니다.

그러려면, 휴거 차원을 높여 <700선 휴거>를 넘어야 됩니다.

그렇지 않으면 때마다 ‘생각과 행위의 변수’에 따라서
<휴거>에도 ‘변수’가 있게 됩니다.

- ◆ <같은 휴거 700선>이라도 ‘차원’이 또 다릅니다.

<미약한 저차원의 700선>이 있고,
<완벽한 고차원의 700선>이 있습니다.

<완벽한 고차원의 700선>이라야
어떤 일이 있든지 ‘변수’가 없고 무너지지 않습니다.

- ◆ <어린 자 수준에서 이것저것 갖춰서 700선에 이른 것>과
<보다 강도 높은 수준에서 이것저것 갖춰서 700선에 이른 것>은
완전히 ‘차원’이 다릅니다.

이는 마치 <일반 사람이 보통 자재로 건축해서 완공한 집>과,
<전문가가 좋은 자재로 건축해서 완공한 집>같이 차원이 다릅니다.

- ◆ <나무를 캐다 옮겨 심은 것>이 ‘똑같이 700선’ 이라고 합시다.

일부 나무는 ‘일반 사람들’ 이 캐다 옮겨 심었고,
일부 나무는 ‘전문가들’ 이 캐다 옮겨 심었습니다.

모두 ‘700선 검사 딱지’ 가 붙었습니다.

그런데 ‘일반 사람들이 심은 나무’ 는
힘들게 살아나기도 했고, 그중 더러는 죽기도 했습니다.

이같이 ‘변수’ 가 많았습니다.

그러나 ‘전문가들이 심은 나무’ 는 그대로 잘 뿌리박아
새잎이 나고 싱싱하게 크기 시작했습니다.

- ◆ 이와 같이 <휴거>도 그러합니다.

자신이 어떻게 얼마나 행했느냐에 따라서
똑같이 <휴거 700선>을 이뤘어도 ‘차원’ 이 달라집니다.

자신이 강도 높게 생각하고 전적으로 행하여
<휴거 700선>을 이뤄야 완전합니다.

그래야 휴거되고도 ‘변수’ 없이 완전합니다.

만일 제대로 못 하면 - <휴거>되고도 ‘변수’ 가 생겨서,
<영>이 ‘천국에서 혼인 잔치’ 를 하다가도
<육>이 제대로 못 하니 불안해서
<육>을 돕기 위해 ‘땅’ 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.

- ◆ <휴거>를 그냥 이루는 것으로 생각합니까?

“<지구를 다 얻는 것>보다 <휴거>가 더 크다.” - 해도

아직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,
자기 육성으로 생각하면서
육적으로 할 것들을 다 하고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.

- ◆ <휴거에 대한 설명>을 다시 듣기 바랍니다.
정말 안타깝습니다.

- ◆ 섭리인들의 행위를 보면,
그동안 몇 년 동안 전해 준 ‘휴거 말씀’ 으로 충분하니까
더 말씀하지 않고 그냥 두고 싶습니다.

그러나 그렇게 하면, 100명 중의 20명은 무너집니다.

그들은 ‘휴거가 상실’ 되어 ‘영원히 휴거되는 데 제함’ 을 받고,
<휴거에서 벗어난 곳>에서 ‘시대 구원’ 만 받고 살게 됩니다.

영원히 복직은 없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더 중요 부분

◎ <휴거>에 대해서 잘 들어요.

- ◆ <휴거 전>에는 마치 ‘연애’ 하듯
<땅>에서 <육>으로는 ‘주’ 와 같이 살고,
<영>으로는 ‘삼위일체’ 와 같이 삽니다.

바로 이때가!! 중요하고 귀합니다.

이때 ‘잘못된 성격과 행위’ 를 고치고,
매일 ‘죄를 회개’ 하여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.

잘못된 성격과 행위를 못 고치고 <결혼식 같은 휴거>를 하면,
'질 낮은 휴거 결혼 생활' 이 됩니다.

◆ 결혼한 자들을 봐요.

결혼하기 전에 잘못된 성격과 행위를 못 고치고 결혼하면,
결혼 후에 '질 낮은 결혼 생활' 을 하게 됩니다.

◆ <중요> 하늘 신부들도 그러합니다.

<잘못된 성격과 생각과 행위>를 못 고치고 휴거되면,
온전한 삼위를 거스르고 주의 심정을 상하게 합니다.

그러면 휴거됐어도 '변수' 가 생기게 되고,
하늘과도 주와도 '100% 누리지 못하고 사는 처지' 가 됩니다.

그러면 하늘은 '다른 자들' 을 통해 <영광>을 취하십니다.

<각 사람의 행위>에 따라

삼위와 주의 '사랑' 이 가고 '축복' 이 갑니다.

지금까지 하나님은 구원역사 6000년 동안 이같이 역사해 오셨고,
주도 땅에서 뜻을 이뤄야 하니

<이 사람>에게 '변수' 가 생겨서 못 하면,

<다른 사람>을 통해 '하나님의 뜻' 을 채워 주면서 왔습니다.

◆ <중요> 휴거되어 살아도

자기 육성을 못 버리고 자꾸 육적인 것들에 빠져 사는데,
이런 행위가 심하여 하늘과 갈등이 일어나면,
소리 없이 하나님과도 주와도 멀어지게 됩니다.

그러면 <뜻>을 이뤄야 하니
하나님과 주의 마음이 ‘다른 사람’에게 가게 되고,
결국 그 자리에 ‘제2의 사람’이 서서 행하게 됩니다.

◆ <심령이 죽은 자>는 ‘산 자의 행위’를 모릅니다.

◆ <중요> <휴거가 중하다는 것>을 알고 전심으로 행해야 됩니다.

계속해서 <휴거의 가치>를 모르고,
육성으로 흘러 <자기 성격>을 못 고치고,
<자기 생각과 행위와 사랑>이 다른 데로 흐르면, 주는 다 압니다.

무엇으로 알겠습니까?

<주께로 오는 사랑의 물줄기>가 약해져서 ‘사랑의 잔’이 안 차니,
그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.

◆ <중요>

- <사랑>이 육으로 흘러 다른 데로 흘렀든지,
- <사랑>을 귀히 여기지 않고 주를 잊고 살았든지,
- <사랑>이 세상으로 흘렀든지,

일단 ‘주께로 오는 사랑의 잔’이 넘치지 않으면,
그 문제로 인해 <신부의 휴거>에 지장이 생깁니다.

그 즉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도 그에 따라 대하십니다.

항상 <사랑의 잔>이 ‘한 방울’이라도 넘쳐흘러야 됩니다.
이것이 되는 자가 ‘보장된 신부’가 됩니다.

◆ <중요> <여러분 각자를 향한 삼위와 주의 사랑>은 100%입니다.

고로 <삼위와 주를 향한 사랑>이 100%여야만,
<사랑의 저울이 되는 삼위와 주 앞>에 ‘공의로운 사랑’ 이 됩니다.

이런 사랑을 하는 자가 ‘진실로 휴거된 자’ 이며
변수 없이 ‘휴거가 완전히 보장된 자’ 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

- ◆ 삼위와 주를 100% 사랑하지 않고 휴거되면,
<그 영이 실제로 거하는 곳>이 자기 생각과는 다릅니다.

마치 ‘열매가 실한 과일나무’ 인 줄 알았는데,
실상은 ‘열매가 시원찮은 과일나무’ 와 같습니다.

<자기 생각>에는 자기 휴거 집에 있을 것이 다 있을 줄 알았는데,
<실제>로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
무엇을 기대하고 찾아도 없습니다.

그제야 <행하지 않은 것>은 그저 망상에 불과하여
실제로는 되어 있는 것이 없고,
<자기가 행한 것>만 실제로 ‘천국 자기 휴거 집’ 에
전설되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.

<천국의 자기 휴거 집>도 처음에는 좋아서
“이렇게 좋은 집이 내게 있다니!” 감탄하지만,
<볼수록 만족 없는 집>이고,
<방들도 만족스럽지 않은 구조와 디자인>입니다.

천국의 자기 휴거 집이 <처음에 볼 때 좋게 보이는 것>은
세상 집에 비해서 좋으니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.

천국의 자기 휴거 집이 <불수록 점점 만족스럽지 않게 보이는 것>은
자기 생각만큼 갖춰지지 않은 상태를
하나하나 확인하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.

방의 구조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
‘좀 뜯어 고칠 수 있나?’ 생각하지만,
세상 집 고치듯 자기 마음대로 못 고칩니다.

<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>를 해야만
거기에 따라 ‘천국 휴거 집의 구조와 디자인’ 이 달라집니다.

때가 되어 배고파 먹을 것이 있나 보면 ‘그냥 일반 음식’ 입니다.
음식 맛도 ‘별로’ 입니다. 천국에서 기대했던 음식 맛이 아닙니다.
맛이 생각과 다르니, 먹다 맵니다.

정원에는 과일나무에 열매들이 열렸으나 ‘보통 열매’ 입니다.

따 먹으니 맛이 그리 입에 감치지 않고,
세상에서 먹는 ‘아쉬운 과일 맛’ 입니다.

이 모두 자기가 ‘사랑의 잔’ 을 충만히 채우지 않고 주를 대하고,
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대한 연고이며 대가입니다.

◆ <중요>

또한 자기 휴거 집 정원마다 <사랑의 열매를 여는 나무>가 있는데,
이 <사랑의 열매>는 ‘하나의 휴거 열매’ 라고도 합니다.

그런데 그 나무에 ‘사랑의 열매’ 가 안 열린 채 ‘꽃’ 만 피어 있고,
어떤 열매는 파인애플만 하게 열려 있는데 익지 않아 시퍼렇습니다.

고로 따 먹지도 못합니다.

그리 익기를 원해도 푸른빛만 눈이 부시도록 납니다.

세상에서 삼위와 주를 ‘사랑의 잔’ 이 넘치도록
사랑하지 못한 연고이며 결과입니다.

- ◆ <중요> <사랑의 열매>가 익으려면,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.

그러면 ‘열매의 색’ 이 조금씩 변하면서 익는데,
익은 후에 먹으면 ‘삼위와 주를 사랑한 강도만큼’ 맛있어서
그 맛으로 <영의 뇌와 온몸>이 흥분됩니다.

그러면서 <영의 뇌와 온몸>에 ‘사랑의 불’ 이 붙게 됩니다.

그때부터 ‘사랑의 힘’ 이 솟고
<천국의 자기 휴거 집의 구조와 환경>도 달라지게 됩니다.

- ◆ 세상에서 살 때
삼위와 주를 전심으로 사랑하여 ‘사랑의 잔’ 이 넘치게 하면서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대한 자들은
천국 자기 휴거 집에 <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>이 존재하고,
자기 정원에 <사랑의 열매들>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열려 있고,
폭 익은 과일 향기가 진동합니다.

<폭 익은 과일>의 희망은 ‘주인이 먹고 좋아하는 것’ 입니다.

그 과일을 따서 먹으면
세상에서 먹는 수백 종의 맛있는 과일과는 비교가 안 되게
맛이 진하고 달콤하고 향기롭습니다.

이 과일나무의 잎사귀는 싱싱하고,

과일나무의 둘레는 두껍고,
키는 사람의 ‘한 키 반’ 정도 됩니다.

한 나무에 과일이 ‘7~15개 정도’ 열립니다.

과일의 생긴 모양은 ‘타원형’ 인데,
마치 ‘참외’ 같기도 하고 ‘파인애플’ 같기도 합니다.

열매가 열리면, 꽃들이 열매를 싸 주고 있습니다.
〈꽃 속〉에서 ‘열매’가 큼니다.

그런데 그 ‘꽃 껍질’을 까지 않고 ‘열매’를 먹어도 됩니다.

과즙이 풍부하고, 여러 가지 향기가 납니다.
씨가 없고, 실속 있는 과일입니다.

버릴 것이 전혀 없고, 한꺼번에 3~4개를 먹습니다.

따다 봐도 썩지 않고,
집에 과일 향기가 가득하여 그 향기에 취하게 됩니다.

- ◆ 천국에서 ‘딸기’를 봤는데, 그 크기가 ‘참외’만 했습니다.
보기에도 좋고 싱싱했고, 실제로 맛도 끝내줬습니다.

〈천국 딸기의 향기〉는 어떤 정도인가 하면,
옆에만 가도 그 향기가 코를 찌러서 코피가 날 정도이고,
감기에 걸렸을 때 콧물이 줄줄 흐르듯 콧물이 흘러내릴 정도입니다.

먹으면, 〈영의 뇌와 온몸〉에 전율이 흐릅니다.
너무 짜릿하여 “으앗!”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.

- ◆ <중요>

세상에서 ‘자기 육’ 이 삼위와 주를 진정 사랑하며 대한 대로,
천국에서 ‘자기 영의 정신과 생각’ 이
음식의 맛과 과일의 맛을 짜릿하게 느끼며 먹게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, 오늘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<중요> 세상에서 <말씀을 귀히 보는 자>는
말씀을 들을 때 진실로 “아멘!” 할 뿐 아니라,
말씀을 들으면서 ‘희열’ 을 느끼고,
감탄하며 ‘홍분의 소리’ 를 냅니다.

얼마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귀히 대하고
말씀을 귀히 대하느냐 ‘그 뇌와 생각과 행실의 강도’ 에 따라서
<삼위와 주>를 느끼고 <말씀>을 느낍니다.

<뇌가 반응하는 강도>가 낮고 <감각>이 낮으면,
아무리 ‘좋은 말씀’ 을 쥐도 못 느낍니다.

마치 - <병든 자>에게 ‘진수성찬’ 을 쥐도
맛을 못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.

- ◆ <설교>도 <잠언>도 귀히 여기고 기도하고
50번, 100번씩 읽고, 행하면서 보면
정말 기쁘고 흥분되어 - 마치 ‘사랑을 느끼는 것’ 과 같습니다.

이 정도는 돼야 - 말씀을 들으면서 ‘홍분’ 되고,
“아멘!” 소리가 억제하지 못하게 저절로 나옵니다.

◆ “깊은 말씀을 주세요.

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받도록 말씀을 주세요.” 하지만 말고,
먼저 자기가 ‘깊이 기도’ 하고 ‘병든 생각’ 을 고쳐야 됩니다.

그러면 ‘말씀의 제맛’ 이 납니다.

◆ 음식도 ‘맛 값’ 입니다.

<맛>에 따라 ‘황금 같은 음식, 은 같은 음식’ 이라고 합니다.

물론 <음식 맛>도 중요하지만,

<먹는 자>가 ‘정상’ 이냐가 기본으로 중요합니다.

<먹는 자>가 정상이 아니면, <음식 맛>이 좋아도 못 느낍니다.

◆ 천국도, 영의 세계도

<자기 생각과 혼과 영의 감각과 강도>를 약하게 하고 가서 보면,
별 감동이 없습니다.

기절초풍하게 느끼고 깊이 깨달으면서 보려면,

<자기 생각과 행위의 수준>을 높이고 <강도>를 높게 해야 됩니다.

◆ <잠언>도 ‘하나님과 성령의 음성’ 을 듣고 그대로 씹니다.

하나의 ‘말씀의 과일’ 입니다.

이 ‘말씀의 과일’ 을 제대로 취하여 먹으면,

<뇌>와 <생각>과 <온몸>에 전류가 흐르듯 감동이 흐릅니다.

◆ <잠언 하나>는 ‘과일 하나’ 와 같고,

<주일 설교, 수요 설교>는 ‘진수성찬’ 과 같습니다.

고로 매일 새벽마다 ‘과일 10~40개’ 를 주는 것과 같고,

매주 주일과 수요일마다 ‘진수성찬 한 상씩’ 주는 것과 같습니다.

먼저 이것을 알고, 말씀 듣기 바랍니다.

◆ 어느 때는 <말씀을 받을 때>

한 포도나무에 ‘수백 송이의 포도들이 열린 것’ 을 보여 주며
그것을 따 먹게 하고, 기도하고 <말씀>을 쓰게 하십니다.

어느 때는 감나무에 ‘감’ 이 많이 열렸는데,
그중의 ‘익은 감’ 몇 개를 따 먹게 하고,
기도하고 <말씀>을 쓰게 하십니다.

어느 때는 ‘복숭아, 사과, 배, 오렌지, 각종 과일’ 을 보여 주며
<말씀>을 쓰게 하고,

어느 때는 ‘쇠고기, 돼지고기, 칠면조 고기, 닭고기’ 등
특별한 고기들을 먹는 꿈을 꾸 후에
<말씀>을 쓰게 하기도 하십니다.

모두 ‘영의 양식’ 을 보여 준 것입니다.

<말씀>은 ‘하나님과 성령님’ 이 주시는데,
‘수백 가지 과일과 음식’ 같이 만들어서 주신다는 뜻입니다.

◆ <맛있는 과일과 음식>을 취도

자기가 ‘건강한 상태’ 에서 먹어야 ‘맛’ 을 제대로 느낍니다.

이와 같이 ‘자기 신앙, 뇌, 생각’ 이 ‘영적으로 건강’ 해야
하나님과 성령님이 각종으로 주시는 <영의 음식>,
곧 <말씀>을 제대로 느끼고 감탄하고,
영도 혼도 육도 <말씀>을 제대로 받고 느끼고 기뻐하며
<말씀의 영양분>을 꼭 흡수하게 됩니다. (믿습니까?)

◎ 마지막으로 잠언 두 개 전해 주겠습니다.

◆ 있을 때는 ‘귀한 것’ 을 모른다.

없어야 그제야 ‘귀한 것’ 을 10배, 100배 깨닫고 알게 된다.

◆ <귀한 것>을 알아야

있을 때 목숨 걸고 모으고 쌓아 놓는다.

그리고 없을 때 댐의 물을 쓰듯 귀히 쓴다.

◎ 말씀 마쳤습니다.